

龍正文化

1985. 3. 31

第 2 號



社 團 人 龍 仁 文 化 院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
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렬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고
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사는 복지사회를 우리들의 손으
로 이룩해 가기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집안 처럼 믿음있게 살아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힘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
해 전진합시다.

군 의 상 징



꽃 : 철 쪽

- 임지능선상에서 성장함은 강한 생활력을 보여줌
- 새 봄에 개화되는것은 근면성을 보여줌
- 연분홍색 화관은 군민의 따뜻한 마음씨임
- 은은한 향기는 민주적 군민의 정신임



새 : 꿩

- 금속광택의 붉은 자갈색은 깊은 역사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뜻함
- 초봄 수컷의 울음은 생동하는 힘찬 기상을 뜻함
- 도시, 공원, 농어촌, 구룡, 산림 어느곳에서도 사는것은 강인한 군민의 생활력을 의미함



나무 : 전나무

- 고요하게 사색하는 모습은 충효와 신의를 생활신조로 살아온 용인인을 뜻함
- 장엄한 기품은 외세의 침입에 승리한 기상을 뜻함
- 뿌리의 심근성은 군민의 굳센의지를 보여 주고 가지가 힘차게 쪽쪽뻗음은 날로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뜻함
- 칩엽수로 잎이 선형임은 군민의 질서의식과 무한한 발전의 요지를 뜻함

목 차

청소년의 해를 맞아	문화원장	4
격 려 사	용인군수	6
칼 럼	孝	박재성	7
학 교 순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8
	송전농고	송전농고	9
용 구 문 단	수필	양승본	10
	시	박상돈	13
꽃 꽃 이	영지회 꽃꽂이	오민근	14
특 집	인장고			
	호산 인보를 중심으로	이인영	15
역사속의내고장	옛 문헌속의 용인	홍순석	25
	선사시대의 문화	정양화	27
	3·1 운동과 용인	한시준	38
	향 토 지 리 지	박용익	42
내 고 장 민 요	배 틀 가	47
역 사 의 인 물	이 단 상 편	48
지 명 유 래	산쟁이, 도깨비골, 무량동	51
사 발 통 문	반공희생자 위령탑건립	53
	영어회화대회 및 피아노 콩쿨대회	53
	단국대 학술조사단 향토연구조사	53
	인성 합창단 단원모집	56



청소년의 해를 맞아

용인문화원장 김 정 근

창간호에 이어 용구문화 제 2 호를 발간하게 되것을 우리 용인군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985 년은 특히 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이 전국가적으로 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몇자 적어 보려합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부모의 문화유산을 전수하게됩니다. 부모의 학식이 높으면 고도의 문화유산을 전수하게되고 부모의 학식이 낮으면 낮은 문화의 유산을 받게됩니다.

후천적으로 배워서 자기 스스로의 문화척도를 높이는 경우도 많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생활환경에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최소한의 발전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의 형성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것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그럼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를 형성하는 교육은 어떤것인가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로 인간이 태어나 학교가기 까지는 집에서 조부모, 부모, 형제들 사이에서 가정교육을 받으며 가풍, 예의범절 등의 가정교육을 받게됩니다.

둘째로는 취학 적령이되면 학교 교육을 받게되는데 가정교육과는 다른 자도의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는 학문도 하지만 자기 신체적인 변화와 이성에 대한 눈이 싹트기 시작하며, 이제부터 세번째로 말하려는 사회 교육에 첫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한편 사회에 접하여 사회를 점점 깊게 알게되면 학교 교육과 사회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이 전부 위선자 같이 보여 사회거부 현상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아의 배경을 살펴보면 골고루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사실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근원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전술한대로 첫째 가정교육, 둘째 학교교육, 셋째 사회교육으로 나누어 나면서 부터 죽을때까지 교육을 어떤 형태로건 받는데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은 부모나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사회 교육은 보고 느껴서 모방 내지는 창작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은 다소 잘못 되었더라도 그 교육을 통하여 사회를 살면서 사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회가 똑바로 서있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치관의 확립, 사회를 이끄는 기성세대의 인격적인 존경심의 유발, 사회 정의의 실현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해를 맞는 1985 년도에는 관심있게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년뿐인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책임을 마음속깊이 간직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격려사

용인군수 송인식

여로부터 龍仁은 忠義와 孝烈의 고장이며 산자수명하여 살기좋은 곳 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연히 이어져온 조상의 高潔한 정신과 전통있는 문화의 터전에서 이 고장을 더욱 더 豐饒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고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적극 참여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尊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인은 용인군민과 더불어 한시대의 흐름을 맞이 하면서 奉仕와 對話를 통해서 福祉에 기여코자 뜻하고 있으며 아울러 용인과 因緣을 맺고 이제 이 고장을 낫설지 않은 제 2의 고향으로 삼아 지역문화를 갈고 닦아 빛내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나아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고장 문화 暢達에 크게 기여하신 金正根 文化院長님 이하 “龍丘文化” 出刊에 참여 하시는 편집위원 여러분께 敬意를 表함과 아울러 激勵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곧 愛國精神의 母體이며 고장의 文化를 보존 발전시켜 나감이 곧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하게 되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激勵辭에 가름코자 합니다.



칼 럼

용인군 정화위원회 청소년 분과위원장

孝

박 재 성

효도의 행(行)은 작게는 한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세워주고 크게는 나라의 화평을 유지해준다. 도의의 德目中에 특히 중요한것은 효도이며 효는 만행의 근원이다. 효도는 천륜(天倫)의 기본으로 큰 뜻을 이루고자하는 사람은 우선 효에 충실해야한다.

우리는 서구문화의 격랑과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더구나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혁속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새롭고 낯선 가치들에 의해 어이없이 매몰되고있는 현상을 보면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목표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선 염치도 의리도 헌신짝처럼 버리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시대가 바뀌고 달라지면 그 사회의 윤리 규범도 함께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효(孝)는 다르다.

아무리 사고와 생활방식이 바뀐다 해도 달라지는 규범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도의가 퇴폐하고 인심이 고갈된 시대에는 특히 효를 비롯한 도의의 계발이 특히 필요하다. 가정의 화목이없고 사회의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의 정치경제가 안정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사회의 도덕적 퇴폐에 깊이 반성해야 하겠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근원적인 출발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드리려고 노력하는것이 곧 효도인 것이다. 부모에 효도하는것은 물질적인 봉양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며 마음으로 공경하며 정성으로 받드는 일이다.

효는 만덕의 근원이며 절대의 덕목(德目)으로 인간된 당연한 도리의 표현이고 인간질서의 원천이며 신뢰와 화목에서 비롯되는 인간존엄의 원천이기도하다. 인간의 덕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효행이야말로 새로운것이 아니며 사람과 함께있는 변함없는 질서이며 법도인 것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것은 물질도 아니며 편리도 아닌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고귀한 정신의 보존인것이다. 부모가 부모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 자식이 자식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관계속에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맺게될것이다.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는 가운데 가정은 화목하고 사회는 건전하며 국가는 번영의 터전을 닦을수 있게 될것이다.



1. 학교명 : 명지대학교
2. 총 장 : 박 일 경
3. 주 소 : 가. (용인캠퍼스)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남리 산 38-2
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4. 연혁 개요

1948. 7. 21 재단법인 무궁학원 인가
서울 고등 가정 학교 설립
1952. 7. 1 근화 여자 초급 대학 설립
1955. 2. 9 서울 여자 초급 대학으로 명칭 변경
1956. 2. 8 서울 문리 사범 대학 설립
1962. 2. 27 서울 문리 실과 대학으로 개편
1963. 9. 26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명지학원으로 개칭
명지대학으로 명칭 변경
1963. 12. 16 4년제 명지대학으로 승격
1964. 1. 28 재단법인 명지학원을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조직 변경
1974. 1. 21 학교법인 명지학원, 방목학원 합병 (존속법인 명지학원)
1983. 3. 8 대학 본부를 용인캠퍼스로 이전
1983. 9. 8 종합 대학교로 승격 인가
1984. 3. 2 박일경 박사 초대 총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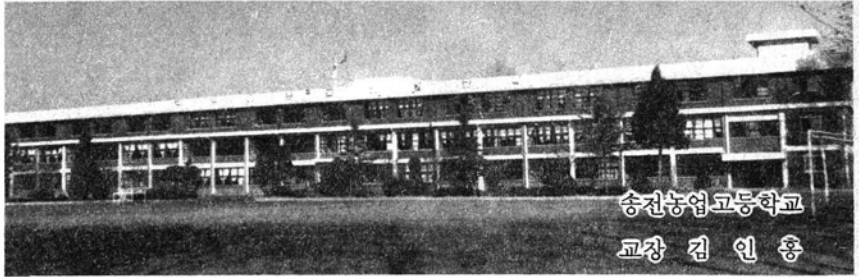
5. 교육목표

가.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깨내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민족 문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케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공헌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 목적이며 설립 정신이다.

나. 교육방침

- (1) 실천을 통하여 성실한 인간성의 도야를 선행한다.
- (2) 인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케하는데 실용가치있는 내용을 먼저 교육한다.
- (3) 민족과 인류문화의 전통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새로운 진리를 착실히 깨내어 인류의 이상을 향하여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교육한다.
- (4) 교육방법은 청각 편중의 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가능한한 실험 실습을 통한 방법으로 개선하여 획기적인 교육 성과를 기한다.



“시공간 즐기아래 송전벌 안고 깨끗이 자리잡은 우리의 학원”으로 시작되는 교가에서 풍기듯, 넓고, 조용하고, 깨끗한 교장에 자리잡은 송전농업고등학교는 開校 17年동안 농촌의 주인이며 선진 농업의 기수들을 15회에 걸쳐 1400여명을 배출 하였다.

본교의 교육목표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협동 봉사하며 번영된 새마을을 건설하고 농학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영농 후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리하여 우리 학생들은 19,732坪의 넓은 농장, 온실 미스트 하우스, 축산실험실, 가공실, 계사, 우사 등에서 폭넓고 풍부한 기술과 교양을 연마하여 장차 이 나라 농촌의 역군으로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

82년 3월 1일 부임하신 「김인홍」 교장 선생님의 노력으로 구교사가 헐리고 3층 보통교실 5반을 증축하고, 농장, 관리실, 가공실, 양잠실 등을 신축하여 명실 상부한 농업고등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올바른 국가관과 전인적인 인간상을 지닌 농촌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남달리 땀을 흘리시는 27명의 교직원 아래 400여명의 학생들은 각기 농업, 축산, 원예의 전문 분야는 물론 경료초친 사상이 투철하며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의지로서 농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보람찬 앞날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각종 영농실습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田 교훈: 성실 근면 협동 田

내가 좋아하는 남자

경기 용인여고 교사

수필가 양 승 본

남자!

이 두글자에서 쉽게 풍기는 것은 용기이다. 용기는 도전과 관계가 깊다. 나는 용기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길가의 숲에서 나오는 뱀을 보고 <어머나>하고 놀라는 여자를 우리는 당연스럽게 받아드린다. 반대로 그런 남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남자로 받아 들이기는 곤란하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 90의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 남자의 용기! 용기는 도전이고 힘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정상에 올라서서 찬란한 태양을 향하여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며 웃음짓는 남자를 보라 누구나 그런 남자를 좋아할 것이다.

여인과 길을 가다가 뺨뺨이 놀이를 해서 돈 몇천원을 잃었을 때 자꾸 뒤돌아 보며 아쉬워하는 남자보다 활활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런 남자는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인한 이별의 광장에서 여자에게 찢찢 찢는 남자보다 속으로만 울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런 남자는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산정(山頂)에서 쏟아내리는 스키장의 남자를 좋아하며 비바람 치는 거센 파도를 헤치며 항구를 향해 달리는 마도르스를 좋아하며 구리빛 얼굴에 힘줄이 보이는 팔뚝을 건어부치며 팔닥거리는 고기떼를 쫓는 남자가 좋고 황금 물결치는 가을 들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잠시 땀을 씻기 위해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는 남자의 표정을 좋아한다. 그런 남자에게는 성실과 근면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불꽃 튀는 응원과 응원속에 하늘이 터져라 외치는 열광의 군중들이 가득찬 축구장에서 철통같은 수비진을 뚫고 지나가서 결승권을 넣는 축구선수의 모습이 매력적인가 하면 양면 막상막하의 득점 상황에서 승리의 흥분을 날리는 찰라의 남자가 좋다. 우리의 피곤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광경이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을 보고 모른척하며 지나가거나 심지어 재미있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남자보다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구해주는 남자가 좋다. 정의감에 불타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남자! 하면 술과 관계가 깊다. 요즘은 여자들도 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그러나 술하면 역시 남자를 연상케 하는 것은 사실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에 비하여 술을 마실줄 아는 남자가 좋다. 술을 마실줄 안다는 것은 술에 대한 예의를 안다는 것이다. 즉 주도(酒道), 주덕(酒德)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술자리에 있을 때의 도리를 알고 지킨다는 것이다.

술을 먹고 심한 주정을 한다거나 남과 시비를 일삼는다면 술을 마실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남자로서 술을 마실줄 아는 사람을 좋아한다. 더구나 술좌석에 시중을 드는 여자가 있을 때 기분 좋게 팁(tip)을 건네주는 남자가 좋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아까우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너의 생각이다. 집에서 손님과 마시는 술이나 어떤 축하연에 초대 받아 마시는 술이야 그 때와 그 장소에 어울리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자면 술집에 가야 하는데 그런 술집에서는 그 술집의 형태에 따라 예의가 지켜져야 하며 그 예의를 지켜주며 술을 마실줄 아는 남자가 좋다는 이야기이다.

이해타산이나 어떤 의견의 대립으로 여자와 충돌이 생겼을 때 악착같이 이기려고 바둑바둑 악을 쓰며 우격다짐 하는 남자보다는 넓은 도량으로 포용(包容)해주는 남자가 좋다. 마음으로 여자를 이해하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을때 동료들이 부르지 않아도 알게 된 즉시 벌떡 일어나서 합심해주는 남자가 좋으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이나 철학적인 용어를 들먹이며 소위 문자를 쓰는 남자 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통사람들의 생활속에 뛰어드는 남자가 더 좋다. 그런 남자에게는 서민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돈독에 눈이 올라 모든 생활을 돈과 연결하며 지내는 남자보다는 현재의 경제 생활을 적절하게 타개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생활적인 남자가 좋고 자나깨나 말이 많아서 계속 떠벌리는 남자보다 대체로 필요한 말만을 하는 남자가 좋다.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침착한 남자의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일을 일일이 따져가며 늘 소심(小心)하게 행동하는 남자보다 대범하게 처리하는 남자가 좋고 매일 타는 붕급봉투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

은후 시장까지 봐준대거나 아니면 콩나물 몇원어치까지 따져서 하나하나 돈을 세워서 아내에게 주는 남자보다 봉급봉투를 봉투 채로 내밀어 주며 살아 가는 남자가 좋다. 그런 남자는 쩌쩌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언제나 자식들에게 근엄하고 명령어를 쓰며 가까이 하기에 곤란한 형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자보다 상과 벌을 구별해서 내리는 아버지, 어린자식이던 성장한 자식이던 함께 대화와 상담을 해주는 아버지형의 남자가 좋다. 그런 남자는 민주형이기 때문이다.

겨울아침 등산코스를 따라 입김을 내 뿜으며 달리는 남자가 좋으며 무쇠같은 팔다리로 공사장에서 땀을 흘리는 남자가 좋은가 하면 그 작업현장을 지휘하면서 동분서주 바쁘게 뛰는 남자가 좋다. 그런 남자에게는 남자다운 건강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매사에 진진할 때는 과감하게 진진하고 물러설 때는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는 남자가 좋고 「글쎄요」나 「어떻게 하나?」란 용어를 쓰면서 어거주춤한 남자보다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밝혀주는 남자가 좋다. 마음과 행동이 분명한 남자가기 때문이며 그런 남자는 상대방을 당황하지 않게 하며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웃사람이나 상사(上司)에게 무조건 네 네 하고 굽신대는 남자보다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며 옳은 일에는 충실히 따르지만 옳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해주는 남자가 좋다. 공익(公益)을 위해 희생을 자오한 남자가기 때문이다. 결혼 할 여자의 재산에 신경쓰고 출세조건에 신경쓰는 남자보다 오직 결혼할 여자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하나만을 믿고 결혼하는 남자가 좋으며 꼭 맡겨진 일만 하는 남자보다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남자가 좋고 일부러 입대를 피하려는 남자보다 군입대를 당연적으로 해주는 남자가 좋다. 그런 남자는 자주성이 강하고 능동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나 표정이 자신감에 차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표정은 마음을 나타낸 것이며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표정과, 마음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일생처럼 살아간다.

그러기에 나는 일생을 살아가는 자세로 하루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낭비없는 시간생활을 하는 남자를 가장 좋아한다.

하루란 일생을 살아가는 문이기 때문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 랑 하 는 마 음

박 상 돈

지금 어드메쯤 바람에 안긴 꽃 한송이
 빛나는 아픔으로 세월을 지을게다.
 내 다시 안타까운 갈망속에 그대를 그
 리워 함은

물결진너 남모르는 그 향기 때문이리

언제부터인가 밤새워 설레이는 기다림
 을 고뇌에서 배웠고 언제부터인가
 마음에 배인 그 습성으로 하여
 아롱진 눈물너머 다소곳이 무지개를
 걸어두게 되었노라.

오오 잊지못할 추억의 날들이여
 어느 가을날 하염없이 꽃잎이진다해도
 그대의 눈웃을 언제나 내 가슴깊이
 새롭게 피어남은
 별처럼 수놓아진 그 반짝이는 기다림
 때문이려니

영육을 저며내는 괴로움속에 머물러
 내 항상 착한미소로
 그대를 손짓함은
 정녕 아픔보다 더 찬란한 그기다림의
 세월 때문이려니.

봄 의 예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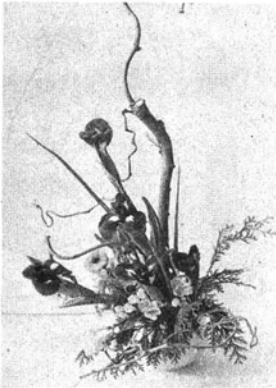
영지희 꽃꽂이 용인지부

사범 오 민 근

素材 : 다래덩굴, 아이리스, 프리지아, 금잔화, 편백

花器 : 백자 항아리

花型 : 직립 자유형



마치 윤기오른 大地와 같이…………

연록색 새싹이 움트는 다래덩굴이 멋스럽고 아름다와 장관을 이루고 보라색 아이리스의 우아하고 조용한 모습은 모시 한복에 옥비녀로 곱게 단장하고 붓을 든 어느 大家집 안방마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다래덩굴 선은 더욱 詩心을 부르는 우리가락의 멋이 있어 동양매듭이걸린 발 옆이나 문갑위에 놓아주면 좋다. 여기서 전개되어지는 높은 이상을 향한 발돋움과 그 이상을위한 너와 나의 따뜻한 인정과 사랑과 도움이있는 새봄이 되길 기원하며…….

□ 꽃 는 법 □

성질이 서로다른 소재를 이용하여 직선과 곡선을 아름답게 조화시킨 꽃꽂이다. 제일먼저 1주지 (信) 를 자연스럽고 멋 있는 선으로 선택하여 화기에 높이+넓이×2배로 재어 사선으로 자른다음 침봉 가운데 0° 에 꽂아준다. 2주지가 생략되었으므로 3주지 (仁) 를 선택하여 1주지에 ½ 크기로 잘라 부드럽고 안정감있게 오른쪽 앞옆에 꽂아준다. 틀이 형성되었으면 가장 예쁘고 작은송이 아이리스로 포인트 삼아 1주지에 ½ 크기로잘라 전체의 가운데 꽂아주고 꽃송이 크기가 작은것을 차례로하여 포인트 오른쪽 옆으로 세송이 $\frac{3}{4}$ 크기로 꽂았다. 그리고 같은 꽃 아이리스 두송이를 기교있게 정면으로 잘 나타내어 울동감 있고 안정감있게 꽂아 주었다. 노랑색 프리지아는 아이리스 사이 사이에 지그자그로 꽂아주고 녹색 편백은 오른쪽 공간에 작품을 받아주듯 안정감있게 하고 왼쪽 옆으론 금잔화를 꽂아 개성있게 미화시켜 새 봄을 함창하듯 조화시켜 공간처리를 했다.

印 章 攷

湖山 印譜를 中心으로

李 仁 寧

≦序≧

일상의 소지품 중에서 도장(圖章)보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물건도 별반 없을것 같다.

이것은 서로의 신용을 확인하는 최상의 신표(新表)인 동시, 사용 당사자의 의사(意思)가 합일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행위로서의 효력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인장(印章)은 예로부터 개인의 심볼 마-크 구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감(印鑑) 같은것은 자연인의 인격을 공증하는 역할과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뿐이라 몇백년이 지난후일 지라도 화공(畫工)의 성가(聲價)를 빛나게 하는것은 하나의 낙관(도장) 때문일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사용하고 있는 인장에 관해서 거의 관심이 없거나 이에 대한 상식 정도도 별반 갖고 있지 않은것이 대개의 사정이다.

보편적 도장의 쓰임새로는 물품의 구입, 매매, 계약등의 서류나 공문서 등에 날인하여 행위자의 의지를 확인,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장은 사용자의 전유물으로써 독특한 개

성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도장 사용의 기원은(紀元)은 고대 중국의 공관인(公官印)으로 부터 시작 되었거니와 청강(晴江) 김영기(金永基) 先生의 한국 전각인장론(篆刻印章論)에서 볼 수 있드시 당시는 주로 동(銅)이나 금동(金銅)과 같은 쇠붙이로 도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전한다.

그후 원나라의 왕면(王冕)이라는 사람이 돌(石)을 다듬어 인장을 만든것이 석재(石材) 인장(印章)을 사용 하게된 시초가 되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파급되어 돌이(印材)의 주종을 이루던 시절이 있었다.

역사를 통해서 볼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삼국(三國) 이전의 낙랑시대(樂浪時代)부터 본격적으로 인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光守樂
之掖浪
印王太

실물크기 2.1×2.1 cm

이 당시의 것으로써 「낙랑태수연왕광
인이 용인 호암미술관에 있고 삼한시
대(三韓時代)의 것으로써 「위술선
한백장」 印등 동제(銅製) 고인이
있거니와 거의 이 시기로 추정되는
「근」 자의 고인(古印) 하나를 이동
면 천리의 한 모씨가 소장 하고 있다.



실물크기 : 2.2×2.2 cm

伯善魏
長韓率

이는 용인에서는 최고(最古)의
인장(印章)인 동시 이방면의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오랜 역사를 통
해 문자를 사용 하면서 그것들 인각
(印刻)하는 금석문(金石文) 예술
에 있어서도 뛰어난 감각을 나타내 보
이고 있음은 새삼 대견스럽다.

그러나 조상이 물려준 그 유산에 대
한 진가(眞價)를 분별치 못하는 무
지로 인해서 귀중한 문화재가 멸실 폐
손되고있는 점은 실로 마음 아픈 일이
이다.

말하자면 누구나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도장 하나에 이르기 까지 조상들
은 그것은 멋과 풍류로 승화시키고 상
형과 도형을 가미하여 완용(玩用)할
출 알았다.

이러한 감각이 오히려 현대인 들에
게는 둔감 하거나 전혀 상식 밖에 존
재하고 있다.

≒用語≒

도장에 각인(刻印)된 글씨를 인문
(印文) 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호(保護)하기 위해 씌우
는 뚜껑을 中國에서는 인토(印套),
일본에서는 인과(印袴)라고 하며
우리는 편의상 인모(印帽)라고 지칭
한다.(晴江印章論)

또 도장을 간직하기 위해 만든 껍을
인갑이라고 하며 실이나 천으로 감싸
도록 만든것을 인랑(印囊) 즉 도장
주머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재(印材)≒

앞에서 밝혔드시 인장을 만드는 재
료로써 고대에는 금(金), 동(銅)
과 같은 쇠붙이가 사용 되다가 점차
석재(石材)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수요가 증대되고 대중화
되면서 상아, 수우각, 수정 등으로 발
전 했을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나
서도가등 특정 부류에서 부터 점차 양
민이나 그 하류 계층까지 인장 사용의
저변층이 확대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서 인각과 인장 제작이 상업성을 띠면
서 취급이 용이한 목재(木材) 등으
로 대체되어 오다가 이제는 자연재
(自然材)의 대용품으로써 인조(人
造) 수정이나 플라스틱 제품등 인공

재(人工材)로 대체 되어가고 있는 시점까지 왔다고 하겠다.

인재로써 최고에 속하는 것은 중국 복건성의 수산석(壽山石)이며 이 중에서도 전황석(田黃石)이 으뜸이라고 전한다.

또 중국 절강성 창화 지방의 창화석(昌化石), 일명 계혈석(鷄血石)이라고 하는 인재는 전황석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인재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남 해남에서 나오는 화반석(化般石)은

“해남옥돌”이라고도 하며 석질이 우수하고 색깔이 아름다워 일명 오화석(五化石)이라고도 한다.

이 돌은 중국 다음으로 손꼽히는 인재로 취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경남의 마산, 충남 청양 등지에서도 약간 출토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장의 종류(種類)≧

인장의 종류는 크게 공인(公印)과 사인(私印)의 두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공인이란 옥새(玉璽: 왕권 표시의印), 종실인(宗室印: 주로 공주, 옹주등 왕실의 부녀자들이 사용하던印), 관인(官印: 정승, 판서 기타 상하 각 관청의印) 등이고

사인(私印)이란 공인에 반대 되는 개념으로서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실인(實印)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밖에 서(書) 화(畵)에 사용하던 낙관(落款)이나 두인(頭印)

사구인(詞句印) 등이 있으나 이 경우도 사인(私印)에 속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들이 사용하던 「封」 「緘」 「謹封」 등 자구를 인각하여 쓰던 봉함인 등이 있고 기타 수장인(收藏印) 감상인(鑑賞印), 감정인(鑑定印)과 같은 것이 있으며 택호(宅號)를 각자한 인장도 본 일이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는 호산(湖山) 인장의 일괄품을 통해서 검토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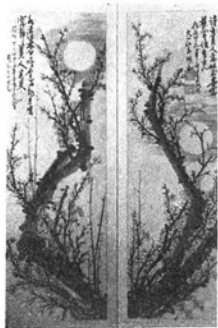
≦호산, 그는 누구인가?≧

호산, 그의 휘(諱)는 종두(鍾斗)이고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광무 6년인 1902년 10월 16일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에서 출생하였다. 16세 되던해에 부모의 슬하를 떠났다. 25세에 관직에 나아갔고, 구한말에는 기울어져 가는 이왕가(李王家)의 기술원(技術員)으로서 일제 치하를 겪다가 30세 되던 해인 1931년 관직을 물러난 후 한성신보(漢城新報)의 특파기자(特派記者)로써 5년간 언론계에 몸 담았다.

그후 전국 방방곡곡의 명승과 고적을 답사하였고 1936년에는 소만국경(蘇滿國境)을 여행한 후 망명하여 중국의 자성(省)과 각 현(縣) 그리고 내몽고(內蒙古)까지 주유(周遊)하면서 자연과 순진(純眞)을 벗삼아 전후 47년간을 시인 묵객(墨客)으로써 강호(江湖)를 떠돌

았다.



湖山筆梅花

그후 일시 만주지방에 거주 하면서 (書) 화(畫)에 심취했던 때도있었다.

호산의 성격은 매우 활달 하였으며 박식다재(博識多才)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학(譜學)에도 밝았으며 詩, 歌, 画에 이르기 까지 모두 능통했던 인물이다.

평소 강인하고 분방한 성격으로 하여 가사나 이재(利財)에 연연치 않았고, 또 명성이나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굴종한 일이 없던 인물로 평가된다.

해방이후 귀국하여 다시 언론계에 종사했고 일시 교편을 잡기도 했으나 한때는 인왕산(人旺山) 아래에서 호산 시가서화(詩歌書畫) 연구소를 개설하고 후학 양성에 전념했던 일도 있었다.

선생의 문집과 저서로는 「我國踏查行蹟記文集」 등이 있으나 6.25 당시 멸실 되었고 그의 일기 몇권이 전할뿐이다. 그의 작풍(作風)은 대륙견식(大陸見識)의 영향을 받아 활달 강

건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하겠고 사군자(四君子)로 부터 영모화(翎毛畫)에 이르기 무난하였으나 조선 후기 민화풍의 잔영이 진하게 풍기고 있다.

≦호산인보(湖山印譜≧

서도가(書圖家)들이 書畫에 사용하는 인장을 통칭「도장」이라고한다. 도장(圖章)이란 사용된 글씨가 상형성과 도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긴 명사 일 것이다.

본래는 하도락서(河圖滿書)에서 연유된 말이다. 즉 중국 황하에서 나온 도(圖)와 낙수(落水)에서 나온 서(書)의 의미이니 도장은 도서와 통한다.

그래서 사대부 들은 문방 4우(文房四友)와함께 이것을 애중히 취급하였고 장식 효과를 겸한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하므로써 미적인 경지에 까지 발전하였다. 즉 재질이 우수한 인재를 치석하여 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질감과 색조를 살려내고 손잡이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종 물형(物形)으로 조각, 사용 하였는데 이의 조각을 인유(印鈕)라고 칭하거나와 조각이 없는 도장은 평유(平鈕), 또는 직유(直鈕)라고 한다.



직유 (直鈕)



인유 (印鈕)

호산이 사용하던 도장은 50 방(方)에 이르고 있었는데 1934년 그가 중국 거주시 인가 사용하던 인장은 1950년 6.25사변과 1.4후퇴 당시 서울에서 분실하고 만다.

그후 1954년 7월 상순 전북 남원의 초운당(草雲堂)에서 호모(호랑이털) 중필(中筆) 붓 1개, 장액(노루) 털 1개등을 비롯 특별히 주문한 붓이 40여개에 이르렀고, 동년 8월 전남, 해남 우수영(右水營)의 옥매산석(玉埋山石: 해남석)을 구입하고 1955년 여름 남원의 「초운당」에서 호랑이 소 용형(龍形)의 인유를 조각한 인장 9개를 각조(刻造)한 외에 8개를 신조(新造)하였으며, 동년에 각종 물형의 석인(石印) 10개를 증조(增造)하여 그의 도장은 50여 방에 이르렀다.

이중에서 우연한 기회에 20여방은 필자가 입수하여 소장 하고 있다. 호산의 인보를 종합해 볼때 그가 사용했던 당호(堂號)는 「강산객」 「옥당학인」 「매송정현」 「매송당주인」

「산수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명(名)과 호(號)가 동상이인(同床二印)으로 인가 된것이 대소 2개가 전한다.

호산은 구한말(광무 6년)에 태어난 인물이지만 그의 도장은 한글과 병행하여 인가 사용 했던것이 두드러진 특색이며 그의 작품에는 반드시 단기(檀紀) 연호를 사용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오랜 국외생활을통해서 모국에대한 애착이 강인 했던 인물이 었음이 확실하다.

한글을 전용 하자고 목청을 돋구는 요즈음같은 세상에서도 작가의 낙관을 한글로 병서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볼 때, 호산은 이미 이방면에 있어서는 선각자(先覺者)였다고 해야 할 인물이다.

도장에 사용되는 글씨는 대개 전자체(篆字體)이기 때문에 이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는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용자 자신만을 위한 금교열쇠의 비밀 숫자와 같은것이 되고 만다. 아무리 느낌이 좋은 글이나 그림을 대했을때 라도 거기 찍힌 도장의 판독이 난해하여 작자가 누구 었는지 알 수 없는 요즈음의 낙관들도 본받아야 할 일이다.



두 종 이

①



산 호

②



③

호산의 한글 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여 자획의 구성이 아름답고 도형 감각이 풍부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데 없는 훌륭한 낙관이다.

이 도장은 홍백색 석재를 두조각(二方)으로 갈라서 호랑이의 인유를 조각 하였으며 인재는 홍백의 회석이 선명하여 자연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④



⑤

다음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예이다.

인면의 공간을 메꾸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글의 단순성을 보완하고, 반대로 난이한 한자 전자(篆刻)을 이해하기 쉽게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어 누구라도 분별이 용이하다. 이 도장도 동일 석재를 2 방으로 갈라서 호랑이를 조각한 한쌍이며 「단기 4289년 3월 1일」이라는 년대가 음각되어 있다.

이처럼 도장의 상변이나 그 좌우에 글을 인각 하는 경우를 측자 또는 방각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장의 단위를 말 할때 그것을 방(方)이라고 한다.

방이란 네모난 모양 즉 4각형의 날개란 뜻이다.

그러나 인장은 方形만 있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요즈음은 거의가 원통형 이거나 타원형의 인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이란 개념이 무색하다.



⑥

⑥⑦의 도장(낙관)은 흑선 백석재(黑線白石材)로써 합천의 이영태(李英泰)가 각자(刻字)한 일석양면(一石兩面)의 도장이다.

성명장(姓名章)은 양각(陽刻)이고 호명(號名)은 음각(陰刻)이다. 측면에 “藝其”라는 변관이 있는것으로 보아 서화 전용으로 사용 하던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인체에 나타나고 있는 과상적인 흑선은 추상화를 연상케 하는 문양을 지니고 있어 보기드문 인재로 꼽히고 있다



梅松堂主人

⑧

무(松) 하나를 더 추가해서 5군자(五君子)로 불렀다.

“매송당(梅松堂)”이란 당호는 그의 자작시 5송가(五頌歌) 중 첫번째의 “매”자와 끝의 송(松)자를 취택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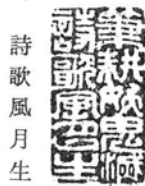
⑦

⑧의 예는 보통 두인(頭印)이라고 하는 낙관이다.

이것은 호산의 당호(堂號)로써 그는 매(梅)란(蘭)국(菊)죽(竹)의 4군자 에다가 소나

그렇게 사용한것 같다.

따라서 이 두인(頭印)은 주로 4군자나 송죽묵화에만 사용 하였는데 하동(河東)의 이방수(李方洙)가 인각한 것으로 되어있다.



詩歌風月生

筆耕效鬼滅

⑨

⑨의 도장은 1석(一石) 양면(兩面)으로써 변관(邊款)은 인수인(引首印)이라고 하며, ⑩의 「李王家技術員」과 같이 신분 관계를 인각한것을 유인(遊印)이라고 한다.

인수인은 시나 고사성어(古事成語) 등 문구를 인각 한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용자의 좌우명이(左右銘) 되기도 하며 주로 서화(書畫)의 두인(頭印)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

또 「유인」이란 사사(師事), (연원(淵源) 관계등을 표시하는 입장을 지칭 하는 것이다.

⑩



人學當玉

⑩의 옥당학인(玉堂學人) 이라는



技術員

李王家

⑩



松菊蘭梅

당호인(堂號印)은 양각이고 매란국송(梅蘭菊松)은 음각으로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⑪의 당호(堂號)는 대개 그의 시축이나 화제(畫題), 휘호용으로 사용했던것으로 보이며, ⑫는 시축의 앞뒤에 사용했고 4군자등 묵화에 사용했거나 시축의 장(章), 절(節)의 중간 여백에 간인 비슷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斗 李
印 鍾



斗 李
印 鍾



山 湖
⑬



山 湖
⑭

⑬⑭의 인장은 무문 황석재(黃石材)의 평유(平鈕)로써 지제(紙製)인갑(印匣)에 별도 보관 된 것으로 보아 휴대품으로 완용(玩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⑬⑭의 인장은 대소 2개의 낙관인이 다. 이 낙관은 하동(河東)의 이방수(李方洙)가 인각(印刻)한 것으로

각풍(刻風)이 동일하다.

특히 이 두개의 낙관은 일석 2인(一石二印)으로써 서화 전용이며,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것을 골라 사용토록 되어있다.

이 두개의 것은 호산의 50여개 도서(圖書)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임으로 호산 인장의 대표격 이라고 하겠다.

방(方)이 좀 큰 낙관의 인수에는 사납게 포효하는 호랑이를 조각했고 작은 것은 산양이나 다람쥐를 조각했다. 그 사실적이고 양징맞은 조형미 말고도 자획(字劃)의 선조미(線造美)와 음양으로 나타나는 인문(印文)의 기굴(起屈)을 볼때 이를 각인(刻印)한 하동의 이방수(李方洙)도 전각 예술에 있어서 뛰어난 장인(匠人)이었었음이 실증되고 있다.

※ 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위원

<告>

紙面관계상 實物크기로 印刷치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독자의 양해를 구함.

- 筆 者 -

湖 山 印 譜

生平自画詩書琴

遊年餘十三洋東



空
老
旅
間



勝
地
江
山



紅白石材

(公州春川刻3方)

情我爲松蒼水淡

流夢一然正事萬

(紅黑石) (黑紅石材) (紅黑石)

(紅白石)



(連山，朴泰勳 刻5方)

(紅白石)

(紅白石)

(紅白石材)



(詞句印：禮山盧水根刻)

筆耕
風妖
月鬼
滅生



菊梅
松蘭



學玉
人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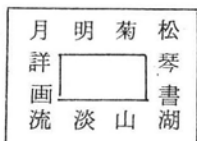
李王家
技術員



(紅黃石)



笑讀古人書



(서울 慕正然刻)



詩佳風月生



筆正鬼神滅



(河東 李方洙刻 8 方)



(公州水晶堂刻 9 方)

옛 문헌속의 용인

(新亭記)

홍순석

용인은 작은고을이나 서울과 인접해있기때문에 여러 많은 빈려(貧旅)들이 밤낮으로 밀려와 이곳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용인) 남북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때문이다. 그럼에도 옛관원은 적어서 겨우 하루밤을 지냈수있을 정도였으며, 한더위를 당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하여 손님이 오더라도 회포를 풀길없어 번열(煩熱)에 허덕이어 이를 병폐로 여긴지가 오래되었다.

천순(天順) 4년 (조선 세조 6년, 1960 AD) 겨울에 박군이와서 이고을을 맡게된 이후로는 과세의 부담을 줄이고, 정사에 힘써 온갖 폐단이 모두 사라졌다. 서리들은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백성들은 모두 흠모하였다. 하루는 그가 서리와 상의하기를 “내가 재목을 모아 정자를 지어 손님들이 시원함을 즐길수있는 곳을 만들고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그가 어진덕으로서 정사를 돌봄을 아는지라 모두들 “바라는 바이므로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장인(匠人)들도 정신을 가다듬고, 역사하는 이도 모두 힘써일했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서둘러 일한 덕으로 한달안에 낙성을 알리게되었다. 일을 시작할때는 백성들 모두 정자를 짓는 줄 몰랐다가 이윽고 다 완성되고서야 바라보며 말하기를 “우리 원님은 옛날의 이른바 신명(神明)이 아닌가. 정자를 지으면서도 어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을까” 하며 서로 바라보며 감탄하고, 정자를 새로 짓게된것을 경축하였다.

요즘을 수령들의 실정을보면 모두 꿈속에 도취된듯 생활하고 관청을 여관집 보듯이하여 기울어진 뒤에야 기둥을 바꾸고 비가 샌뒤에야 수선하며 심한자는 기와하나 갈아끼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나는 백성을 아껴서 그렇다.” 하며 풀한포기도 뽑지않고 “내들에는 송사(訟事)가 없어서 그렇다.” 하니 관사의 퇴락은 항상 이같은 무리들로 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어찌 일에 분발하여 처음

부터 튼튼히 할수있는 자가 있으며 어찌 능히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게 하고 이와같이 할수있는 자가 있으리요.

내가 임금의 부름을받고 용인을 지나는데 박군이 나에게 붓을주며 청하기에 이렇듯 부끄러운 글을 적고보니 그가 또 “정자의 기문을 얻었으니 다행이나 명칭이 없으니 어찌하랴” 하므로 나는 “명칭이 있어야 의당 옳겠지만 없더라도 괜찮지않겠는가. 용인고을에 그대와같은 원이 없었으면 정자가 세워질 까닭이 없고, 정자가 세워지지않으면 명칭이 어디서 나오리요. 명칭이 없는것으로써 명칭을 하는것도 역시 좋은 명칭이 아닌가” 하였다.

그가 더욱 간절하게;청하므로 하는수없이 용인 백성이 우러러보며 새로지은 것을 경축한다는 뜻을 따서 이름을 신정(新亭)으로 하고자하였다. 전(傳)에도 있지 않은가” 신(新)이라 이른것은 옛이 있기때문이다.”라는 말이 또한 군자가 귀중히 여긴다는 뜻도 없는것이 아니다. 박군의 이름은 거명(居明)이요 자는 회부(晦父), 본관은 밀양이다.

이글을 지은 김수녕(1437)은 조선조성종때의 문신으로 자는 이수(頤叟) 호는 소양당(素養堂)이다. 안동사람이다. 세조, 예종실록등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호조 공조참판까지 지냈다. 문장이 뛰어나고 특히 경사(經史)에 밝았다. <동국통감(東國通鑑)>의 편찬도 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것이다.

위의 기문을 통하여 우리는 적지않은 귀중한 사실을 찾아볼수있다. 우선 맨처음 부분에서 지적하고있듯이 우리고장 용인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 인접해있으면서 서울을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렀다가는 곳이었음을 확인할수있다. 남쪽지방과 북쪽지역을 잇는 목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 바로 용인인것이다. 그럼에도 박거명이 용인현감으로 부임하기 이전까지는 아직 정자가 마련되지 않았음도 볼수있다. 박거명에 대해선 자세히 알수없으나 지나는过客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정자까지 세울생각을 가졌던 것을보면 용인백성을위해 선정을 베풀었음이 분명하다. 세조 6년(1460)에 용인현 어디엔가 정자를지어 <신정>이라 이름했다는 사실에서 앞으로 이에대한 관심을갖고 그 유적을 확인해 보는일도 의미있는 작업이되리라본다. 또한 흥미있는일은 윗 글이 실려져있는 <동문선>에 김종직(金宗直)이 지은 <용인원정소개(龍仁園亭小題)>라는 한시작품이 실려져있어 서로관련시켜 볼수도 있을것 같다. 이에 대해선 다음호에 적기로 한다.

선사시대의 문화

용인상업고등학교 정 양 화

가. 머리말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여 현재와 같은 문화를 이룩하기까지는 약 200 만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도 이미 50 만년 전이라고 하며 이는 우리의 역사가 상당한 연륜(年輪)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구석기 유적의 발전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시대 상한(上限)도 더 올라갈 수 있으며 문화에 대한 복원도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고장의 경우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된 예가 아직 없으며 전체적인 지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우리 고장 둘레의 여러 지역과의 관련성이나 한국사와의 연관성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불과 몇 개 안되는 유물을 가지고 우리 고장의 선사시대에 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믿어 이미 발견된 우리 고장의 선사 유물을 이용 선사시대의 우리 고장에 대해 이야기 하기로 한다.

나. 구석기 시대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본격적으로 발견 조사된 것은 1960 년대 이후 부터이다. 현재까지 발견 조사된 유적은 공주 석장리와 웅기 굴포리, 상원 검은모루, 계원 점말동굴, 청원 두루봉동굴, 연천 전곡리 등이 있으며, 특히 상원 검은모루 동굴의 경우 중국의 베이징 원인(原人) 과 동시대의 유적으로 판명되어 이미 50 만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인류가 거주 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발견은 종래까지 일본인들의 식민사관(植民史觀)^{주1)}에 의해 부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의 존재와 그 시대적 상한(上限)을 확고하게 해준 주) 칩락행위를 정명화하고 합리화하며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 왜곡하여 열등한 민족으로 인식시키고 일제의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사관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구석기 시대의 존재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 되었다.

이러한 구석기 유적들은 남북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조사 연구 결과에 따라 그 수효가 더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우리 용인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거나 유물이 출토된 예는 아직 없다. 그러나 우리 고장 들레에서 이미 채집 보고된 유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간이 거주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우리 고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원시, 화성군, 안성군 등지와 수지면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탄천 유역인 역삼동, 가락동, 암사동 등지에서 구석기 유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때 주2) 우리 고장에서도 구석기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다.

다. 신석기 시대

우리 고장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된 예도 아직없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는 약 6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현재까지 약 100여 개 이상의 유적이 조사 보고되어 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구분은 석기제작수법, 경제상태, 사회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도 좀 더 진보 발전되고 있다. 즉 타제석기가 마제석기로, 수렵, 채집, 어로 상태가 농경, 목축단계로, 동굴 거주가 움집 등으로 변화하며 좀 더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도구라 할 수 있는 토기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제석기라고 해서 모두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아니며 우리 고장의 경우 거의 전부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따라서 우리 고장의 신석기 시대의 존재도 현재까지의 조사 연구 결과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구석기 시대의 존재 가능성과 우리 고장과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강 수계의 대표적 신석기 유적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석기인물들이 우리 고장을 발견하거나 머무르는 등의 단계까지는 충분히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구석기 시대보다 신석기 시대의 존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석기 유적인 서울 암사동, 광주 미사리 등 지와는 가까운 거리로서 탄천이나 경안천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3)

앞으로 우리 고장에서도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조사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주2) 손보기 석장리 이외의 구석기 문화의 분포 가능성

백산학보 7호(1969) pp 3-24

라.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약 B·C 10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동기 I기와 II기로 구분하고 있다. 주 4)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에 비하여 경제활동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확대와 문화의 발전이 현저하게 진보되며 계급의 발생이나 읍락(邑落) 중심의 사회까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북방계통의 청동기로서 북쪽으로부터 시작되어 남쪽으로 전파되었다고 하며 선주민(先住民)인 신석기인들을 정복하거나 흡수, 동화하면서 남하하여 현재 우리민족의 주류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한 한반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한강유역을 거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청동기인들이 우리 고장을 거쳐 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되며 그 이전부터 우리 고장은 문화의 전파나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고 믿어진다.

특히 모현면 초부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의 거푸집은 주 5) 우리 고장에서 청동기가 직접 제작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푸집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청동 거푸집의 발견이 우리 고장이 청동기 문화가 남하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며, 현재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는 길과 광주에서 용인을 지나 안성으로 나가는 길이 중요한 통로로서 이용되었을 것이다. 또 위의 경로는 우리 고장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할 때에도 중요한 유입경로로도 이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선사시대에 우리 고장으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유입경로를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천변이나 낮은 지대가 산등성이나 언덕보다 길이 먼저 생기고 사람의 이용이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 만큼 우리 고장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먼저 북쪽으로 광주를 거쳐 팔당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안천과 수지면 쪽에서 발원하여 성남을 거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서울 대운동장 쪽으로 흘러가는 탄천과 남쪽의 진위천 안성천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위천이나 안성천 보다

주 3) 지도를 통해 도상거리를 산출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분기점(구성면마북리)에서 한강과 탄천의 합류점(남서울 대운동장)까지의 직선거리는 25km(약 60리) 정도이고, 동국여지승람에도 서울은 80리로 기록되어 있다.

시간당 4km를 간다고 할때 6시간 정도면 물수있고 2배를 잡아도 하루면 물수 있는 거리이다.

주 4) 청동기 문화의 시작이나 구분은 학자에 따라 통일되어 있지 않다.

대체로 BC IOC 경에 동조하며 I기(BC 7C ~ BC 3C)와 II기(EC 3C ~ A.D. O)로 구분하고 있으나 역시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주 5) 용범(鎔範)이라고 하며 청동검, 청동창, 구리방울 등의 주조기구(주물들)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는 경안천과 탄천 경로가 먼저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푸집의 발견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의 경제상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 농경이 시작되고 따라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며 점차 낮은 구릉지대로 주거지를 옮겨가게 된다. 농경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며 반달 모양의 돌칼 [半月形石刀]이 대표적 농구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도 반달 모양의 돌칼이 출토되어 농경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로 생각되며 아울러 기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대부분 남향을 한 양지 바른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보아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곳에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어 생활했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또 고인돌이나 선돌의 존재로 더욱 확실해 진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서 농경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하천이 크지는 않으나 수량이 풍부하고 물고기가 많아 최근까지도 유명했으며 높지는 않으나 산이 많아 수렵이나 어로에 다같이 편리한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에도 경지면적이 다른곳에 비해 훨씬 적은것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주 6)

다음으로 당시의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신석기 시대의 사회단계인 씨족(民族)의 단계에서 부족단계, 또는 읍락 중심사회 단계까지도 확대 되어지는데 우리 고장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고장의 경우 고인돌이나 선돌 등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있기 때문에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부족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존재했었던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모현면 왕산리 고인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규모로 볼때 매우 큰편에 속하는 것을 보아도 그와같은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존재했었음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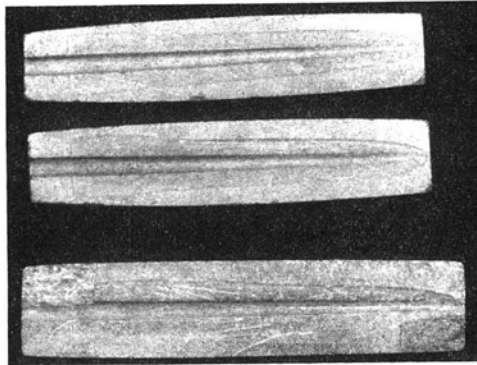
한 연구에 의하면 고인돌 문화에 대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고인돌 축조의 경우 하루에 4°정도의 경사지를 감안하여 16 명이 1 t 을 1.6 km 정도 운반할 수 있다고 한다. (주 7) 왕산리 고인돌의 경우 하나가 약 33 t 정도로 계산 되는데 이를 약 500 여 m 떨어진 왕산리 동쪽 산기슭에서 운반해 왔을 경우 약 140 여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이며, 노약자와 어린이, 부녀자를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인구가 거주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고인돌이 우리 고장에 여섯군데 정도

주 6) 경인일보사 경기연감(1983) p 392

용인군 전체면적의 64%가 임야로 되어있다.

주 7) 이용조 한국 선사문화의 연구 평민사(1980) pp 189 - 191

그리고 선돌이 세군데 정도 남아있는데 한 군데 2개 이상이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고 시간적 차이를 두고 만들어 졌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수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형태까지는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강력한 족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앞으로 보아 확실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어 조사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고장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1. 모현면 초부리 출토 청동 거꾸집 [鎔范] (사진 1) 모현면 초부리에서 출토되었으며 현재 국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활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3개로, 두 개가 1쌍이며 양면 모두 주형 (鑄型) 이 있고 나머지 1개는 한쪽에 만 주형이 있다. 1쌍의 경우 길이가 22.8cm, 6.2cm의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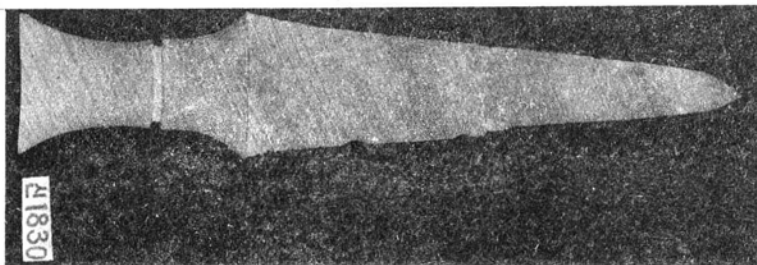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동검은 대략 2 가지 유형인데, 하나는 북방 스키토 시베리언 주8) 계통의 영향을 받은 비파형 동검이며, 또 하나는 우리 나라에서 주도된 세형 동검이다. 비파형 동검은 만주식, 부여식, 요녕식 동검이라고도 하며 우리 나라에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북방으로 부터 수입되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의 영향을 받았으나 우리나라에서 주도된 순수한 고유의 동검이며 청동기 시대 후기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연대는 약 기원전 300 년경 부터이다. 따라서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우리 고장의 청동기가 주도된 연대는 최대한 기원전 300 년경 부터 시작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마제돌칼 [磨製石劍]

주8) 흑해 연안에 위치해서 발견했던 문화이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문자가 없으며 동물양식의 (Animal style) 도구를 잘 만들어 썼는데, 이 문화는 흉노족에 의해 시베리아를 거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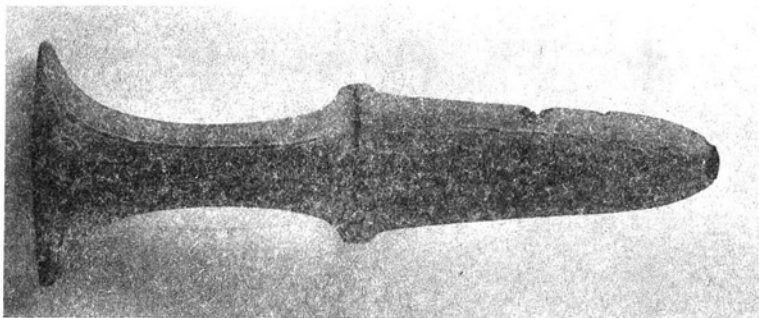
가) 이동면 덕성리 출토 마제돌칼 1965년 덕성리 소진하씨가 산사태로 인해 유실된 밭에서 발견 신고한 것으로 양면에 날이 서있는 전형적인 돌칼이며 길이는 약 19.5cm로서 날의 길이 10.5cm 자루 부분의 길이가 약 9cm 정도이다. 흑색 편마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칼날 부분과 자루 부분이 돌출부로 구분되어 있고 상하로 넓어지며 가운데가 좁은 모양이다. 칼의 끝부분이 부서져 없어졌다.

나) 남사면 창리 출토 마제돌칼 (사진 2)



1969년 9월 출토되었으며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길이는 약 33cm, 폭이 6.7cm 정도이며 자루 역시 상하가 넓고 가운데가 좁은 모양이나 가운데에 잘록하게 홈이 파여 있어 2단으로 되어있다. 칼 전면에 평행으로 그어진 빗금무늬가 있으며 칼날은 군데군데 이가 빠지고 칼날의 중앙부분이 절단 되었다.

다) 포곡면 유운리 출토 마제돌칼 (사진 3)



1981년 12월 포곡면 유운리에서 발견되었으며 길이가 21.6cm, 자루 부분의 끝부분의 폭이 7.9cm 정도이다. 자루와 날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 실제 사용된 듯 하다. 돌의 맥이 겉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칼

끝과 날의 한쪽이 조금 파손되어 있다. 岩質은 頁岩(혈암) 제이다.

라) 남리 출토 돌칼 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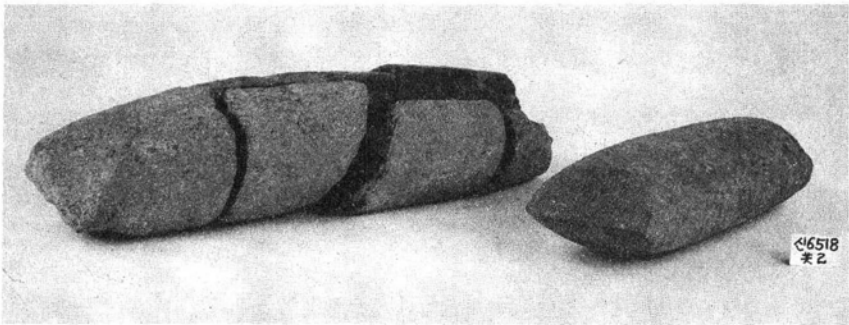
약 12 cm의 길이로 자루 부분만 남아 있으며 남사면 창리 출토의 경우와 같이 자루가 2 단으로 되어있다.

마) 이동면 화산리 출토 마제돌칼

석기와 마제 돌칼이 출토 되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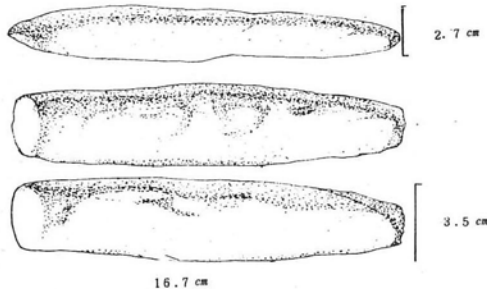
3. 마제 돌도끼 [石斧]

가) 구성면 보정리 출토 돌도끼 (사진 4)



1981년 7월 구성면 보정리 산 651번지에서 장례식 도중 발견 수습되었다. 큰것의 길이는 약 24.5 cm의, 두께 5.5 cm, 폭 7 cm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18.5 cm 4 cm, 6 cm 정도의 크기이다. 큰것은 7개로 대파 되었으며 표면은 거칠게 가공 되었으며, 대략 장방형(長方形)을 하고 있었다. 날 부분은 조개 모양으로 갈아서 만들어 졌으나 일부가 결실(缺失)되었다. 작은 것도 역시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큰 것과 같은 수법으로 날 부분은 타원형의 조개 모양으로 만들었다. 큰 것에 비해 완전한 모양이며 매끄럽게 제작되었다.

나) 내사면 정수리 출토 돌도끼 (도면 5)



1979년 내사면 정수리에서 출토 되었으며 냇가의 자갈들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길쭉한 장방형(長方形)이며, 끝부분의 폭이 좁아지며 날은 조개모양을 하고 있다. 돌끝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길이가 약 16.7 cm, 폭 3.5 cm, 두께 2.7

도면 5) 정수리 출토 돌도끼

cm 정도이며 표현이 거칠게 부식되어 있다.

다) 기흥면 고매리 출토 돌도끼

1980년 4월 고매리에서 출토되어 금중완씨가 소장하고 있다고 하며 냇가의 자갈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나 조사할 수 없었다.

라) 포곡 국민학교 소장 마제돌도끼

1970년도에 포곡 국민학교 향토관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앞의 개울에서 주워다 놓은것이라고 한다.

담당 교사가 전근갈 때 가져가 버려 확인할 수 없었다.

4. 돌화살촉 [石鏃]

가) 남리 출토 돌화살촉

길이가 6.2cm 정도의 완전한 모양이며 삼각형의 날을 갖고 있고 뿌리가 길게 돌출되어 있는 모양이다. 마제 석촉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광범위하게 제작되었고 전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나) 모현 국민학교 소장 돌화살촉

모현 국민학교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주 9)

5. 고인돌 (支石 : Dolmen)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 (墓制) 이다. 보통 남방식과 북방식으로 구분하여 한강을 기준으로 존재 한다고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으나 광복 이후 조사연구에 의해 그렇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현재는 용어의 제정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으나 북방식은 고인돌 또는 지석묘, 남방식을 변형 고인돌 또는 변형 지석묘로 부르고 있다. 우리 고장의 지석묘는 거의 다 북방식 고인돌이며 북방식 고인돌의 남한계(南限界)를 이루고 있다.

가) 모현면 왕산리 소재 고인돌

모현면 왕산리 498번지에 소재하며 왕산 국민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노고봉이라 불리우는 큰 산줄기가 서쪽으로 흘러 왕산까지 다다르고 있는 산기슭에서 약 300여m쯤 떨어진 평평한 곳에 2기(基)가 위치하고 있는데 하나는 도괴(倒壞)되어 있다. 뚜껑돌(蓋石)은 크기가 5.3m × 4m, 두께 0.9m쯤이며, 지상에서 약 1.4m의 높이를 이루고 있다. 전형적 북방식으로 보통 것의 2배쯤 되는 대형에 속한다. 석실(石室)은 좁은 편이며 4개의 판석(板石)으로 짠 것이다. 앞쪽 직사각형 중 짧은쪽이 훼손되어 없어졌다.

주 9) 경기도지 편집위원회 경기도지 상권(1955) p 154

나) 내사면 주북리 소재 고인돌

내사면 주북리 속칭 배터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서향으로 뚜껑돌은 2.5 m × 2.8 m, 두께 50 cm 정도이며 지상에서 50 cm의 높이이다. 석실은 역시 판석 4개로 짜여진 것이나 짧은 변 한개는 훼손되었다.

다) 구성면 상하리 소재 고인돌

구성면 상하리 387 번지 용인 수원간 국도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2 개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1 개만 전한다. (하지석: 下支石)

상하리라는 명칭도 상지석리, 하지석리가 합쳐져 만들어진 이름 이라고 하며 현재는 도괴되어 있다.

라) 원삼면 맹리 소재 고인돌 (사진 6)



원삼면 맹리 맹골 부락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고 남방식 고인돌로 보인다. 크기는 길이가 3 m, 폭이 2.8 m, 두께가 약 60 cm 정도이다. 뚜껑돌은 큼직한 세모꼴 모양이며 두께도 거의 일정하다. 본래는 하나였으나 가운데에 금이 가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틈이 벌어져 현재는 2 개로 쪼개져 있고 쪼개진 부분이 무

더어진 것으로 보아 오래전의 일로 보인다. 특기할 것은 고인돌 위에 27 개의 구멍이 있는 것인데 잔 [CUP] 모양의 구멍 또는 구멍등으로 불리우고 있고 거의가 둥근 모양이나 세모꼴에 가까운 것도 있으며 크기는 큰것의 지름이 약 12cm 정도 작은 것은 3cm 정도이고 깊이는 1 - 7cm 정도이다. 구멍은 빠른 석기를 이용하여 갈아서 만든 것으로 구멍을 만드는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으며 성혈(性穴)로서 생산이나 풍요를 비는 의미, 다산(多産)의 의미 또는 무덤에 묻힌 피장자(彼葬者)의 나이나 수효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또한 구멍이 존재하는 고인돌은 우리 고장에서도 처음이며 우리 나라에서 발견되고 수많은 고인돌 가운데서도 많지않아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기 타

군내에 고인돌은 기흥면 서천리에 기가 있었으나 매몰(埋沒)되어 없어졌고 기록에 의하면 용인읍 김량장리 모현 국민학교 등지에도 있었다고 전한다.

6. 선돌(立石: Menhir)

선돌은 입석이라고 하며 고인돌과 같은 시대의 선사유물이며 전승 기념물(戰勝

紀念物), 경계표시, 또는 태양송배 등의 구실을 했다고 하며 고인돌보다 적지만 현재 군내에는 세 곳에 소재하고 있다.

가) 포곡면 신원리 소재 선돌

포곡면 신원리 41번지 느티나무 옆에 위치하며 2개가 있다. 하나는 높이가 197 cm, 폭이 118 cm, 두께가 58 cm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179 cm, 90 cm, 55 cm 정도의 치수를 보이고 있다. 이 선돌에는 청주 이씨와 용인 이씨 문중에 각기 다른 전설이 전한다.

나) 원삼면 사암리 선돌

원삼면 사암리 내동 부락 입구 소재 이병덕氏 밭 경계에 서 있으며 모두 3개로 나란히 서 있다. 폭이 1 m, 두께가 3 - 40 cm 정도이며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서 있고 나머지는 조금 기울어져 있다.

다) 남사면 창리 소재 선돌 (도면 7)

남사면 창리 부락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 높이가 2.1 m, 폭이 60-65 cm, 두께가 30 cm 정도이며 돌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가공하여 세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선돌의 아랫부분이 양쪽으로 잘록해진 흔적이 있어 인위적인 조각이 가해진 흔적으로 보인다. (약 20 cm 정도 들어가 있음) 인위적인 제각이 확실할 때 남근(南根) 신앙이나 주술적인 의미와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으며 원시적 신앙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반달 모양의 돌칼 (半月形石刀)

1965년 5월경 용인읍 남리 옥현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길이가 모두 13 cm 좁으며 폭은 각각 5 cm, 4 cm 정도이다.

모양이 1점은 반월형(半月形), 1점은 장방형(長方形)에 가까우며 날이 마모되어 뚜렷하지 않은 점을 보아 사용했던 흔적으로 여겨진다. 반달모양의 적수용(摘穗用: 이삭을 따는데 이용) 도구이며 선사시대 농경의 존재와 형태를 알려주는 농구(農具)로써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이는 곧 우리 고장에서도 농경이 시작되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7. 적석총 (積石塚)

적석총은 돌을 쌓아 만들어진 무덤을 말하며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초까지 계속된 묘제이다.

우리 고장에는 용인읍 마평리 석담에 적석총이 남아있고 모현면 갈담리에도 적석총이 있었으나 후자는 훼손되어 흔적도 없다. 모현면 갈담리 적석총의 경우 약 60-80평 정도의 규모였고 높이가 1.5 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이었으며 큰 돌의 경우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 작은 자갈돌도 있었으나 보통 직경이 30 cm 전후의 냇가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무덤 가운데 큰 돌을 배열하여 이루어진 유구(遺構)가 존재 했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적석총의 완전 훼손과 아울러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마평리 석담 소재 적석총의 경우 주변이 밭과 민가가 들어서 많이 잠식되어 있으며 집주위를 넓힐 때 돌을 주위 담을 쌓았기 때문에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나 본래는 직사각형〔長方形〕모양을 했던것 같다. 돌은 큰 것도 약간 있으나 대부분이 작은 자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냇가의 돌을 이용했고 돌을 표면이 거칠고 모가 난것으로 보아 경안천 상류인 남리 운학리 앞개울과 주변에서 재료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마. 땃 음 말

이상에서 우리 고장의 선사 유물과 유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통례에 따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로 구분하여 우리 고장의 선사시대에 관해 이야기 했지만 필자의 식견(識見)이 부족하고 유물이 제한되어 있는 까닭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유물이 없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더 많은 조사가 진행되어 우리 고장에서도 훌륭한 유적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고장에 본격적으로 인간의 거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청동기 시대 부터이나 신석기 시대에도 인간이 거주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고장이 한강 유역과 인접하여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인들의 남하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방식 고인돌의 한계선이 우리 고장을 나가고 있는 것도 고인돌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특히 모현면 초부리에서 발견된 거푸집의 경우 아직도 “무쇠점터”라는 지명이 있어 그곳과의 관련성이 좀 더 밝혀지면 좋겠고, 외사면 근삼리에 있는 “칠성바위”도 고인돌로 생각되어지나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 고장만을 놓고 이야기 하다보니 단편적이고 주관에 흘러버린 면도 없지 않으나 이는 향토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으로 생각되며 또 인근 여러 지역과의 상관 관계나 우리 역사의 흐름속에서 우리 고장의 이야기를 전개시키지 못하고 유물의 간략한 소개로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현재 존속하고 있는 유적의 보존과 이에 대한 가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문화재 애호 정신과 이를 보호하는 행동이 생활화 되어야 하겠다.

3 · 1 운동과 용인

단국대 강사 한국사

한 시 준

3.1 운동은 한민족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전개한 거국, 거족적 독립운동이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항일반시민은 파고다 공원에서, 한국이 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려는 독립선언서를 발표 낭독하였다.

선언서 발표 직후 파고다 공원에 모였던 2만여 명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돌입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시민이 이에 합세, 시위군중은 수십만으로 늘어났다. 또한 평양·진남포·정주·원산 등 몇몇 도시에서도 사전계획에 의하여 서울과 거의 같은 시각에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로써 폭발한 3·1 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서울을 진원지로 하여 3월 1일 폭발한 만세시위운동은 대체로 4월말 경까지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박은식(朴殷植)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의하면 전국에서 1,542회의 쫓기가 있었고, 205만여 명이 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렇듯 3·1 운동은 대규모적이었으며, 시일이 지날 수록 대도시를 비롯한 군·면, 그리고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전파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치열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던 관계로 타도(他道)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1일 오후 개성에서 만세시위가 있었고, 3일에는 고양군에서 9일에는 인천에서, 10일에는 양평에서, 11일에는 평택, 안성 등지에서 운동이 있었다. 이는 대체로 4월말 경까지 전개되었으며, 그 절정기는 3월 하순 4월 상순이었다.

용인군에서도 이 3·1 운동은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용인군내에서의 만세시위운동은 현병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많은 사상자와 피검자가 생겨났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 3월 21일 □

원삼면 좌항리에 사는 황경준(黃敬俊), 최상근(崖相根), 안명옥(安明玉) 김은수(金殷秀) 등이 주동이 되어 동리 사람 2백여명과 함께 원삼면 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였다. 이때 이은표(李殷杓), 이인하(李寅夏) 등이 태극기를 들고 앞장섰으며, 이용환(李容煥), 김성남(金性男), 김영달(金永達), 김창연(金昌淵) 등이 크게 활동하였다.

□ 3월 28일 □

수여면(지금의 용인읍) 김량장리와 포곡면 금어리에서 큰 시위가 있었다. 김량장리 에서는 임원호(任元鎬), 김경운(金敬雲) 등이 주동이 되어, 부락민 3백여명과 함께 군청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날은 김량장리 장날로서 동리 사람들은 물론 각지에서 모인 장꾼들이 이에 가담하였고, 포곡면 금어리의 시위 군중 2백여명도 이에 합세하여 대규모의 만세시위를 하였다.

포곡면 금어리에서는 권종목(權鍾穆) 이 주동이 되어 동리 사람 2백여 명과 함께 삼계리를 통해 만세를 부르며 시위 행진하였다. 도중에서 삼계리의 홍종욱(洪鍾煜), 홍종황(洪鍾黃) 형제를 만나자 “모현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너희 동리에서도 만세를 불러라” 하며 태극기를 내주었다. 이에 홍종욱·종황 형제는 이인봉(李仁鳳)과 함께 동리 사람들을 모아 김량장리의 장터로 향하였다.

□ 3월 29일 □

수지면 고기리에서는 이덕균(李德均) 이 전날(28일) 안종자(安鍾瑀) 등과 만세시위 일으킬 것을 준비하고, 29일 부락민 1백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동천리까지 시위 행진하였다. 이때 고기리, 동천리의 부락민이 모두 3백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뜰덕리를 거쳐 수지면 사무소 까지 시위 행진하고 읍산면(지금의 구성면) 마북리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일제 헌병과 충돌하였다. 결국 일제 헌병의 방해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

고 해산하였다.

또한 내사면 남곡리에서는 한영규(韓榮圭), 김운식(金元植) 등이 주동이 되어 동리 사람 1백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내사면 양지리까지 시위 행진하였다.

□ 3월 30일 □

수지면·읍삼면이 연합하여 일어났다.

수지면·읍삼면 두개면에서 1,500여명이 모여 만세시위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읍삼면 언남리의 도로상에서 일제 헌병과 충돌하였다. 이들 군중은 일제 헌병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헌병을 포위하고 이들을 폭행하였다. 이때 헌병이 불리해지자 발포하였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군중은 해산되었다. 또 기흥면에서는 3백여명이 면사무소로 몰려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 3월 31일 □

이날 오후 의사면에서는 약 3천여명이 모여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에 일제 헌병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발포, 이들 중 사망자 1명 부상자 수명이 생겼다.

남사면에서는 군중이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을 협박, 만세를 부르도록 하였다. 면장이 이에 쉽게 응하지 않으므로 이에 면장은 자전거를 타고 송전리에 있는 일제 헌병주재소로 달려가 군중이 습격해 올 것이라고 믿고하였다. 이리하여 헌병이 출동, 결국 군중은 해산당하였다. 면장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날(4월 1일) 아침 약 2백여 명이 면사무소를 포위하고, 면장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면장이 간신히 몸을 빠져나와 부근의 산속으로 도망하자, 군중은 이 산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급보를 받고 달려온 헌병에 의해 결국 이군중은 해산당하였다.

Ⅲ.

용인군에서의 3·1 운동은 대체로 3월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3월 1일 서울에서 발발한 3·1 운동의 물결은 점차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고, 용인군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의하여 3월 21일부터 시작되어 4월 1일까지 계속되었다.

각 리단위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때로는 면과 면이 연합하여 그 규모가 3,800여 명에까지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있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수백 명 단위의 시위였다. 초기에는 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는,

즉 만세시위 운동이 주가 되었으며, 남사면에서는 면장도 이 만세시위에 참가시키려 하였다. 결국 이것이 실패하게 되고, 일제 헌병과 충돌하여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되자 시위 군중은 극렬해지게 되었다. 29일 헌병과 충돌하여 강제 해산을 당한 이후 30, 31일 양일간에는 헌병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만세운동은 치열해졌다. 이로써 많은 사상자 및 피검자가 생겨났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Ⅱ p 266)에 의하면 3·1운동 기간 중 용인군내에서의 시위 횟수가 13회, 연인원 13,200명, 사망 35명, 부상 139명, 피검자 500여명이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김포의 15,000여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인원수이며, 피해상황도 타군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이로 보아 용인군에서의 3·1운동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용인군민은 강한 독립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민족의식이 강한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1 운동시 용인군내 만세시위 운동 현황

날 짜	발 생 지	주 동 인 물	사 상 자	비 고
3월 21일	원삼면 좌항리	황경준 최상근 안명옥 김은수		
27일			사망 : 1명 부상 : 1명	
28일	용인읍김량장리 포곡면 금어리	임원호 김경운 권종목 홍종황 홍종옥		
29일	수지면 고기리 내사면 남곡리			
30일	수지면 원삼면 기흥면		사망 : 2명	면사무소 습격
31일	외사면 남사면		사망 : 3명 부상 : 4명	헌병주재소 습격 면사무소 습격

※ 위의 표는 <한국독립운동지험사> <한국독립운동사> 등 독립운동 관계 자료를 통해 발췌, 정리한 것임. 각 자료마다 현황이 다른 곳도 있으나, 여기서는 앞의 두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鄉土地理誌

박 용 익

사람이 살 곳을 선택할 때에는 먼저 지리(地理)를 살펴보고 두번째는 생리(生利)를 취하고 셋째 인심을 살핀 다음 山水를 돌아본다고 했다.

이 세가지 요소중 한가지만 부족해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리가 아름다우나 생리가 좋지 않으면 오래 살 곳이 못되고, 생리는 좋으나 지리가 좋지 못하여도 역시 오래 살 곳은 못된다고 했다.

또한 지리와 생리가 모두 합당하다 하더라도 인심이 순후하지 못하면 후회함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아름다운 산수(山水)가 없으면 정서(情書)를 기를 수 없다고 했으니 사람 살만한 곳을 선택하기란 이렇듯 어려운 것일 수 밖에 없다.

지리의 선택을 중시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생활 그 자체를 자연적 여건에 적응해 가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자연에 귀의(歸衣)하려던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이 맞아 떨어지는 <살만한 곳>이 과연 몇군데나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따져 볼만한 겨울이나 여유도 없겠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적어도 양기(陽氣)와 음습(陰濕)이 화합하여, 산이 있음에 물이 흐르고 물이 있음에 산의 정기를 닦아내는 지리를 살펴서 생명력이 넘치는 환경을 얻은 다음, 순후한 인심과 경계의 아름다움을 벗할 곳이면 거기에 모옥(茅屋)이라도 짓고 살았다.

또한 배산(背山)면류(面流)한 곳에 밭을 일구고 과원(果園)을 가꾸며 양친을 봉양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며 때로 탁정천(濯淸泉)하고 진량풍(進涼風)하면서 고기를 낚고, 벽공에 기러기 나는 소리에 맞춰 시를 읊조리는 것. 그리고 하늘보고 땅을보아 책반을 일 없으면 그것이 바로 안빈낙도이며 더바랄 것 없는 만족한 삶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회구는 다분히 도학적이고 선비적이며, 풍류적인 것 만을 강조한 것이니 경제 유통구조의 편의와 능률위주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의 감각으로 본다면 이상과 같은 것은 하나의 은둔이며 유폐이고, 현실도피적인 생활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렇듯 자연에 순응하려던 생활통념과 편의와 능률위주의 생활을 계산해내려
는 현대인의 사고와는 좁힐수 없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두가지
전후의 관점에서 용인지방의 특성을 살펴보고 종합해 봄으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고장이 살만한 곳인지?.....

살만한 곳이라면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겠고 그렇지 못한점이 있다면 더 좋은
여건을 가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 하므로써 더욱 합리적인
생활조건을 개척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 하는것이 오늘날 우리에
게 부과된 사명일것이다.

田 배꼽중의 배꼽 田

택리지나 연려실기술의 지리전고 편을보면 우리나라는 해좌 (亥坐: 북북서)
사향 (巳向: 남남동) 인데 동과 서로 합치면 1천 2백 8십리 이며, 남과 북을
합치면 2천 9백 9십 8리 라고 했으니, 삼천리 금수강산도 따지고 보면 2리가
부족한 셈이다.

대체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노인 형상이며 서쪽을 향하여 면이
열려 중국에 읍하고 있는 형상이므로 중국과 친하고 가까이 지냈다. (택리지) >
고 했는데, 이것은 사대주의 근성에서 생겨난 말인듯 하다.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별하여 북부, 중부, 남부지방으로 대별하여 부르거나와
경기도는 중부지방 권역에 위치하고 그 중~~심부~~부를 차지하는데 용인지방은 경기
도의 수부도시 (首部都市) 인 수원 동쪽에 인접하고 수도 서울 남쪽 40 km지점
에 인접하고 수도 서울 남쪽 40 km지점에 위치한다.

수리적인 위치로 볼때,

극동 (외사면 백봉리) 은 동경 127°30' 이고,

극서 (기흥면 서천리) 는 동경 127°00' 이며,

극남 (이동면 어비리) 는 북위 37°05' 이고,

극북 (수지면 고기리) 은 북위 37°20' 이다.

동은 이천군 마장면과 인접하고, 서는 수원시와 화성군 동탄면에 접하며 남
은 안성군과 평택군에 인접하고 북은 성남시와 광주군에 인접한다.

육당 최남선의 표현을 빌리자면 경기도의 위치를 <나라를 배꼽>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용인의 위치는 교육의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배꼽중의 배꼽으로
부상되고 있다.

※ <나라의 배꼽>: 최남선 작사인 경기도 가사중 수록됨.

田 龍仁은 分水嶺지대 田

용인의 위치는 위도상으로는 수도 서울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여름과 겨울 양 계절의 온도차는 3~4℃까지로 나타난다.

특히 메주고개(龜祖峴)로부터 내사면 양지까지, 이동면쪽 용인읍경계까지 경안천을 중심으로 그 지류일대는 환절기에 안개가 많이 끼고 있다. 이것은 일교차가 심한 지역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습도가 높다는 것을 말한다. 임야가 전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용인은 각처에 소분지가 점재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인접 시군을 내려다 보는 분수령을 이룬다. 이 중에서도 고냉지로는 용인읍 동진이 신기, 대촌, 무너미고개일대와 포곡면 마성, 금어리 일대, 모현면 능원리 사기막, 우명동, 오산리 일대, 내사면 평창리 도창부락, 식금리 정수리 등은 해발 240~250m나 되며 78년도 통일벼의 냉해 피해가 가장 극심하던 지역이다. 년 평균 기온은 11.3℃, 1월의 평균기온은 -4.8℃, 8월의 평균기온은 26℃이며 연간 강우량은 1300mm내외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특히 용인읍 무너미 고개는 빗방울이 떨어질때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는 간발의 차에 따라서 남으로 떨어진 빗물은 진위천으로 해서 아산만으로 북쪽의 빗물은 경안천으로 해서 남한강 상유로 흐르게 되어있다.

고개의 이름이 <무넘이> 또는 <무넘이>인것은 본래 <물넘이>라고 하던 말의 변형인 동시에 이곳이 기호(畿湖) 지방의 수령이 되는 지점임을 가르치던 지명이다.

田 龍仁은 山稜의 분깃점

일상 용인군의 지세를 말할때는 - 광주산맥의 여맥이 각처에 점재하여 소분지를 이루고..... 등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용인의 지세는 북쪽으로 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려온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부터 서, 북, 동 쪽으로 뻗어 나간곳임을 알 수 있다.

지리전고(地理典故)나 택리지(擇里誌)를 보면 - 태백산맥으로 부터 서북쪽으로 뻗은곳에 소백산이 되고 그 일지(一枝)는 속리산(俗離山)이 된다고 했다. 속리산의 한줄기는 서쪽으로 뻗다가 북으러 달려 거질화령(巨叱火嶺)이 되고 달천(達川)을 끼고 동으로 흩어져 서쪽으로 가다가 三生山과 두타산(頭陀山)이 되며, 죽산의 경계에 이르러 七長山이 된다.

죽산의 七長山은 기호(畿湖) 경계에 우뚝 솟았고, 서북쪽으로 뻗쳐 수유현(水踰峴), 이동면 어비리 경계)에서 크게 끊어져 평지가 되며 남사면 일대의 곡창지대를 이룬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용인의 부아산(負兒山)이 되고 또 석성산(石城山),

광교산(光敎山)을 일으킨다.

광교산으로 부터 남쪽으로 뺀어서 화성이 되고 서쪽으로 뺀어 관악산, 수리산이 되며, 바다를 건너 강화에 이른다. 또 죽산의 칠장산에서 갈라진 일지(一枝)는 원삼의 구봉산(九峰山)이 되는데 이 산은 예로부터 산성(山城)을 쌓을만한 곳이라고 했으며 기호에 통하는 큰 길 한 복판을 점하고 있다.

이곳으로 부터 양지를 따라 동쪽으로 달린 산세는 여주 영능에 이르고, 또 곧바로 (양지에서) 북쪽으로 가다가 남한산성이 된다고 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기호지방의 산세는 용인에서 동북서로 흘러지는 분기점이 됨으로서 사거용인이란 말이 생길만큼 명당 자리가 많을수 밖에 없다. 용인의 산세가 펼쳐 나갔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것은 경안천이 남으로 흐르다가 북으로 흐르다가를 보면 알것이며 기타 탄천(炭川), 진위천, 경미천 등이 방사상(放射像)으로 흐르고 이 하천의 원류지가 모두 용인이라는 것들유의 해보면 명확해 질것이다.

田 地形과 地質 田

용인군의 동단(東端)인 外四지역과 서단의 器興 일부 지역에는 쥬라기의 대보 화강암(大窩花崗岩)이 분포되고 駒城面, 일대는 중생계(中生界)의 각석(角石)이 분포한다. 그리고 여타 대부분의 지역에는 先캠브리아紀의 호장편마암(縞狀片磨岩)과 화강암질(花崗岩質), 편마암, 그리고 단산속군(端山屬群) 편암이 나타난다.

우리군은 특히 남북주형(南北走形)의 단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층에 따라 하천이 흐르고 낮은 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천 연변에 따라서는 제 4기, 충적층(沖積層)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군의 산세는 남북으로 뺀어나간 4개의 산줄기에 의해서 구분된다.

서쪽의 시흥, 성남의 경계, 지역에는 광교산(582), 백운산(560), 바리산 형제봉 등으로 이루어진 400m 이상 남북방향의 산능(山稜)이 있으며 이 산능의 동쪽에 남북방향의 침식저지(侵蝕低地)를 지나 이 산줄기와 평행한 또다른 산능이 있다. 이 산능은 남한산성 방향으로 뺀어나며 포곡, 모현, 구성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기흥면과 용인읍 그리고 이동면과 화성군 동탄면과의 자연적인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산봉은 함박산(306), 부아산(403), 석성산(471) 향수산으로 이어지며 용인과 이동의 동부지역을 대분하는 산능은 구봉산으로 부터 정북으로 뺀어나면서 성륜산, 문수봉, 쌍령산, 국사봉, 태화산(645), 말악산 등지로

연결된다.

이 산능의 동쪽으로는 비교적 고도가 낮은 산봉이 동북으로 흘러졌는데 주요 산봉은 건지산, 수정산, 정배산(조비산) 등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산세가 남북으로 이어 나가고 있음으로 그 사이의 침식저지의 충적지(沖積地)들도 남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근의 서남부 지역의 저지는 한강지류인 청미천과 진위천 지류인 신갈천이 형성한 충적지와 그 주위의 저위 침식구능지로 형성되고 있다.

※ 참고문헌 : 택리지, 지리전고 내고장 용인

원 고 모 집

본 문화원에서 계간지로 발간되는 용구문화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 요령에 의거 주민 여러분의 원고를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주옥같은 글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속놀이, 문화재등 발굴기 (원고매수 자유)
- 애항심 고취에 관한 산문 (원고 12매)
- 향토문화 창달을위한 논문 (15매)
- 각 기관 및 학교, 일반사회단체등의 동정소식 (원고매수 자유)
- 수필, 시, 콩트 등

보내주실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 문화원 전화 2-2033번

베 틀 가

오늘날도 하심심하니
베틀이나 놓아볼까
사랑노래 베틀에
베짜는 아가씨는
수십만 끼노라
눌림때는 외덕신
잉아때는 삼형제
짚각짚각 짚가닥
낮에 짜는것은 일광단요
밤에 짜는것은 월광단요
일광단 월광단 끈게 다듬어
어느님을 모셔올까
들창밖에 날리는 비는
가신님에 눈물이야
오동동주야 달이동동 밝은데
님에동동 생각
살이동동 나노라
오동동 오동동
술타령이 오동동야

제보자 : 용인읍 김량장리 동구

최 종 예 (여 67 세)

이 단 상 (李 端 相)

(李朝名臣學者)

이단상(李端相)은 이조현종때의 학자로서 송정원년인 1628년(인조6)에 연안이씨 문중에서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이명한(李明漢)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자(字)는 유능(幼能), 호(號)는 정관제(靜觀濟), 시호(諡號)는 문정(文貞)이다.

인조 27년인 1649년 문과에 급제 옥당(홍문관)을 거쳐 병조정랑(兵曹正郎)이 되었다가 호당(湖堂)에 들어갔고 대간(大諫)으로 있을때 효종(孝宗)이 승하하여 대세가 변하므로 관직을 버리고 집에서 경서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후에 청풍부사(淸風府使) 응고, 인천부사를 지냈으나 사퇴하고 홍명하(洪命夏) 송준길(宋浚吉) 조복양(趙復陽)의 추천으로 경관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양주에서 학술 연구에 힘 썼다.

특히 현종은 통정대부 승지(承旨) 등에 임명 했으나 모두 사퇴하고 1669년 부제학(副提學)으로 서연(書筵)을 모셨으며 죽은뒤에 이조 판서로 추증(追贈) 받았다.

송시열이 그의 묘지명(墓誌銘)을 짓기를 유능이 서거 하였으니 내가 친구가 없게 된것을 슬어하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친구가 없는 것이 슬은것이다.

유능은 나면서 부터 장래가 촉망 되므로 유능을 아는 자는 처음에는 사화(詞華)를 추중(推重)하고 그 다음은 충성됨과 믿음을 가상(嘉尙)하고 그 후에는 편안함을 구(求)치 않는 염퇴(恬退)함을 높이 여기고 그 종말에는 독실하게 닦은 학문을 숭배 할것이지만 입심용력(立心用力)이 높고 원대한 것에 대하여는 유능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지는 못한 것이다.

문장 세가(世家)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부터 총명이 절륜(絶倫)하여 시

(詩) 를 지음에 있어서는 문장의 구사력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그의 시를 감상해본 사람이 있다면 칭찬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성장해 갈수록 조사(藻思) : (시나 글을 쓰는 재능) 하는것이 준일 하여서 글 꽤나 안다는 사람도 감히 그 앞에서는 겨루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21 세 때에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하였고 해를 넘기어 대과(大科)에 발탁되어서 문학지사(文學之士)를 기다리는 자리는 공이다. 역임 하였으나 이론(異論)이 없었고 토론(討論)과 글 지을 재료를 모아 문장으로 표현 함에도 문채(文采)가 뛰어나 글의 수식과 내용이 서로 알맞게 가추어져 문맥을 승계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강직 하기로도 정평(定評)이 있었는데 입조(立朝)당관(當官)이라도 전랑(銓郎)으로서 잘못된것을 바로게 하고 허물을 간(諫)하여 정화하는데 있어서는 요즈음 말로 지위의 고하가 없었다고 했다.

그가 한림(翰林)으로 있을때이다. 효종이 무사들을 조련하고 훈련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이 운집한 교장이 궁원(宮苑)에서 뻗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특히 대비(慈聖)가 목욕을 하는 곳이어서 내 놓고 발설하지는 않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화연(譁然) : 왁자지껄 수군대는 모양) 할 뿐이었다.

때에 유능이 상감계 말씀들여서 조련 장소가 부적하므로 옮기도록 주장하였다. 또 그가 옥당(玉堂 : 弘文館)에 있을때 임금의 덕이 무실(無實)함을 논(論)하는 가운데 어진 신하를 예대(禮待)하는데 소홀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홍욱(金弘郁)이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의 억울한 죄상을 상소한 일로 해서 죽게된 일을 강력히 비판한것을 비롯 임금이 궁궐을 신축하려는 것과 능침에 참배하고 돌아오는중에 활쏘기 시합을 관람하던 일 등이 도리에 불과함을 직간하는 등으로 하여 결국 왕의 꺼림을 받게 된다.

정개청(鄭介淸)이라는 위인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정여립의 일당으로서 호남사람들이 외람되게 서원에 배향하고 제사 한 일이 있어서 그곳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한후 서원을 철택시켰다. 이 일을 가지고 그 일당의 선도(善道)라고 칭하는 자가 상소하여 정개청을 정학(正學)이라고 주장함에 유능이 이의 부당함을변론한 일도 있다. 그가 시강(侍講 : 임금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것)을 하면 삼매진경(三昧眞經)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일찌기 어사가 되어 호남지방을 순행 지방행정을 득찰하고 송사(訟事)를 옮겨 다스려 백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돌아와서 민생의 어려움을 진언하여 조세를 감면토록 하므로서 호남의 백성들이 송덕비를 세우고 은혜를 감사했다고한다.

1659년 효종이 승하(昇遐)함에 대당의 북벌정책이 실행되지 못할것을 한탄하고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두문불출 하였다. 그 후에도 조정에서 여러번 천거하여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고 양주지방에 은거하여 성리학(性理學)

의 연구에 심취하였다.

그러다가 가세가 곤궁하여 소식(蔬食)도 어려웠음에도 당시의 유능을 앞설만한 인물이 없다고 할만큼 학문을 닦았다. 조정의 정사를 바르게 하려면 유능이 단상을 기용해서 유림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우제(牛齊)의 진언에 따라 요직에 임용하였으나 역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젊었을 적에 술과 시회(詩會)를 즐겨 했으나 벗과 더불어 대작하지 않으면 역시 술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이것 역시 절도가 있어서 옳기고 고치는데 주저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외모가 수척하고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여 의복을 감당할 힘이 없을 지경이었으나 정신은 밝고 음성은 관주(貫珠)같이 명랑하고 마음은 빙벽처럼 투명해서 재리(材利)를 보면 몸이 더러워질까 경계하므로 비록 곤경빈한하나 변함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부모 상을 당한 후에는 백형(伯兄)을 부모같이 섬겼으며 친지와 우애는 남달리 돈독했던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그의 묘소는 모현면 동림리 왕림부락 동쪽에 있으며 묘하에는 신도비가 서 있는데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창협(金昌協)이 쓴 것이며 승정기원후 74년 신사(辛巳: 1701)년 9월에 세운 것이다.

묘지명(墓誌銘)에는 가평군 조종현(朝宗縣), 향유지원(向幽之原)에 장사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후에 이곳으로 천묘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서로는 대학집람(大學集覽) 사례비요(四禮備要) 성현통기(聖顯通紀) 등이 있고 정관제 집록(靜觀齋集錄) 22권 10책의 시 문집이 있다. 이것은 1682년(숙종 8)에 아들 이희조(李喜朝)가 윤지선(尹趾善)에게 편찬을 청하여 간행된 것으로 원집(元集)과 별집(別集)으로 되어 있는데 원집에는 詩應製 文 소(疏) 계(啓) 서(書) 발(跋) 제문(祭文) 공이(公移) 행장(行狀) 비명(碑銘) 묘표(墓表) 등을 수록하고 별집(別集)에는 시(詩) 서(書) 부록(附錄) 세계도(世系圖) 년보(年譜) 등을 실었다.

그의 신위(神位)는 양주의 석실(石室) 서원 인천의 학산(鶴山) 서원에 배향되었다. (仁寧)

※ 참고문헌: 행장기, 묘갈, 인물지

지 명 유 래

李仁寧

田 산 쟁 이 田

용인군 기흥면 지곡리 두암산 부근이다.

「산쟁이」는 「사은정」의 준말이다.

용인현 읍지에 “斗岩山 卽 己卯名賢 趙靜庵 光祖 李陰崖 紆 趙晦谷 光佐 方隱 光輔 四先生 藏修講學之所也，中間頽廢 陰崖 晦谷 画家後孫 卽 其地重建 今反頽廢”라고 한 기록이 있다.

즉, 현 서쪽 10리 「두암산 기슭에 기묘명현 정암 조광조 음애 이 자 회곡 조광좌. 방은 조광보등네 선생이 수업하고 강론하며 학문을 두텁게 하던 곳이다. 중간에 퇴폐하여 음애와 회곡 양가 후손들이 그곳(地)에 다시(정자를) 중건하였으나 지금 또 퇴폐하였다」는 것이다. 이 분들이 젊은시절에 이곳에서 청운의 꿈을 가꾸면서 경(耕), 신(薪), 조(釣), 채(菜) 즉 씨 뿌리고 나무하고 고기 낚고 나물 뜯으며 은거 하던곳 이기에 후세에 사은정(四隱亭)이라 한 것이다.

이들 선비는 유가(儒家)의 법도를 좇자 고매한 기품과 깊은 학문을 통한 치세경륜(治世經倫)의 장한 뜻을 기렸으나 백락의 준마인듯 세월 잘못타고 나서 뒷날 기묘사화로 웅비의 기상이 꺾이고 만다.

명현이 회동하던 「사은정」이 「산쟁이」이가 된 세상이니 어즈비 세월의 흐름이란 이렇듯 무상 무심한 것인가?

田 도깨비 골 田

내사면 대대리 속칭 사기점골 서남쪽에 있다.

어느 홀아비가 처녀 도깨비에 홀려 애뜻한 정을 나누던 곳이었다는 전설에서 생긴 지명(속명)이다.

어떤 즐거리로 사랑이 전개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도깨비는 귀신이나 유령 요정등과는 다르다. 옛부터 도깨비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학적으로 그려졌고, 짓궂은 반면 좀 우매한 편이어서 더러는 사람에게 횡재를 안겨 주기도 한다.

몽당 빗자루에 피 묻은것이 밤이되면 도깨비로 변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부터
둔갑술이 신통하여 홀아비를 희롱 하기도 한다.

그 방망이면 얻으면 금시 발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민간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토속 생활속에 파고든 도깨비는 오히려 친근
감을 준다. 도깨비를 대신하여 "이티"가 동심을 파고드는 현대문명 속에서 아직
「도깨비 꿀」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만 하다. 도깨비가 사라진 요즘
세상이야 말로 진짜 낮도깨비 같은 세상 아닌가?

콩가루로 커피를 만들고 톱밥으로 고추 가루를 만드는 등 진짜와 가짜가 무
쌍하게 둔갑하는 회한한 세상에 옛날 도깨비가 와서 본다면 첫마디에 「야 진
짜도깨비 세상이구나」라고 말할것이다.

田 무량동 (無量洞) 田

내사면 대대리 사기점 마을과 상리의 중간지점을 무량동 이라고 부른다.
아미타여래가 법장보살 (法藏菩薩) 로 있을때에 일체 중생을 구제 하려고 48
개의 원 (願) 을 세워 시일을 두고 도를 닦아 드디어 성불, 서방 극락세계의 주
인이 되었는데 이 아미타불의 말을 믿고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 이라고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아미타불을 모셔놓은 법당을 무량수전 (無量壽殿) 이라고 한다.
또 무량 (無量) 이라고 하는것은 천, 억조, 경과 같은 수치의 한 단위로써 경
(京) 이 억의 억배이며 조 (兆) 의 만배 이듯이 경을 수억으로 합치고 또 곱
하면 불가사의 (不可思議) 라는 한 단위의 수 가 되며, 또 그 불가사의를 수억
배 하면 무량대수 (無量大數) 가 되는 것이다.

유한 (有限) 과 무한 (無限) , 실존과 부재의 동시성을 지닌것이 바로 「무
량」이란 수치다. 예컨대 이곳의 무량골은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셨던 법당이
있었거나 아니면 물이나 나무감 같은것이 넉넉하여 이것을 좀 과장되게 표현
해 오던것이 연유되어 전해오는 지명인것 같다.

반 공 희 생 자 위 령 탑 건 립



한국반공연맹 용인군지부 (지부장 인태운) 에서는 3천 5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반공희생자 위령탑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200평 (제공자 조종국씨) 에 세워질 이 위령탑은 6.25 동란중 민간인 신분으로 공산당과 각처에서 싸우다 희생된용인군 출신 반공투사와 인접 시군에서 항거하다 투옥된후 자유수호의 밑거름이 된 2백여 반공투사들의 영령추모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전후 세대 청소년들에게 반공교육의 실증현장으로 삼아 반공의 뿌리를 심어주기위해 건립되는 것이다.

이 위령탑은 4월 10일 기공예정으로 용인군청에서 천만원 지원과 관내 초·중고 학생 5백여만원 기부장단 5백만원, 운영위원 및 특별지부에서 5백만원 일반사회단체 및 유지가 5백만원, 읍면 지도위원회 5백만원중 지원금과 성금 총 3천 5백만원이 투입되며 탑의 높이는 7.5m로 오는 10월 30일 제막 예정이다.

제 2 회 영 어 회 화 대 회 피 아 노 콩 쿨 대 회

용인 문화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오는 7월에 두번째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한 영어회화대회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한 피아노 콩쿨대회를 실시한 계획이다.

단국대 학술조사단 대군

단국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고전어 문학부에서는 용인군 전지역에 대해 고문헌 및 금석문, 민담, 전설, 민요 등 구비문학자료, 방언조사, 민속자료를 조사차 4월부터 7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반:

지도교수 : 황패강, 남풍현, 전광현

학 생 : 김승원 외 15명

□ 답 사 일 정 □

답사지역	답사예정일	내역
모현면	4월 13일 ~ 14일	오달제 남구만 유순정 유희
모현면	5월 11일 ~ 12일	정몽주 정보 이단상 이석형
구성면	6월 1일 ~ 2일	윤행임 민영환
원삼면	8월 17일 ~ 18일	허균 허봉 허성 허엽
이동면	9월 21일 ~ 22일	이한응 임정 최규서
이동면	10월 12일 ~ 13일	이익 이재
외사면	11월 9일 ~ 10일	유형원

□ 인성 합창단원 모집 □

본 합창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여 혼성 합창단원을 모집 접수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자 격 :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모집인원 : 남여 ○○명

연 령 : 제한없음

문의 및 접수 : 용인문화원 전화 2-2033

